“찬불가는 다함께 부르는 부처님 노래”



박범훈 석좌교수가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수미산 가족음악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다.



2022년 8월 4일 서울 한국의집 취선관에서 열린 ‘한국음악과 교원 임용장 수여식’에 참석한 박범훈 석좌교수(앞줄 우측 첫 번째).

‘박범훈 석좌교수’ B1면에서 계속

“동국대 서울캠퍼스에 한국음악과가 신설된 것은 새로운 역사를 이룬 겁니다. 앞서 언급한 공립 합창단의 행보는 불교계가 불교음악인을 많이 길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불교음악 전공자와 불자 음악인들이 합창단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었다면 앞서 말한 ‘선교공연’이라는 어이없는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박 교수가 말하는 ‘인재양성’은 한국불교의 미래에 관한 것으로 불교음악을 통한 포교에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그야말로 십년, 백년, 천년을 바라본 큰 불사인 것이다.

“한국음악과라는 명칭의 학과는 이미 다른 대학에도 있지만 이번에 신설된 동국대의 한국음악과는 교육과정 자체가 전에 없던 것으로 동국대만이 할 수 있는 것이며, 최초로 시도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렇다. 이전의 한국음악과라는 학과 이름도 박 석좌교수가 처음 만든 것이다. 하지만 이번 동국대가 신설한 한국음악과의 이름 속에는 ‘불교음악’이 함께한다고 할 수 있다. 아니 뼈대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우리의 전통음악을 기반으로 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한국음악(K-Music)을 창출하고 이끌어갈 인재양성을 목표로 설립됐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한국의 전통음악은 역사 깊은 불교음악과 동일성을 갖추고 있어 불교음악의 전승과 창출에도 크게 기여한다는 것이다. 전통음악을 모체로 신한류음악을 창출하고 선도해 나아갈 한국음악과는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학과로 주목받을 것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목표는 사회현장에서 필요로 하고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력을 배양해 전통문화예술을 전승하고 새로운 문화예술을 창작할 수 있는 글로벌 문화예술 인재를 육성하는 데 있다.

박 석좌교수는 전에 없던 교육과정을 구상했다. ‘융합교육’, ‘1:1 맞춤형 개인지도’, ‘특화교육’, ‘집중교육’이 그것이다. 전 학년에 걸쳐 가(歌)·무(舞)·악(樂)·희(戱)의 융합적 교육을 실시한다. 모든 학생은 인간문화재급의 저명인사로부터 1:1 개인지도를 받는다. 기악 전공자는 작곡과 지휘 실습교육을 받고, 성악 전공자는 노래연기(무용수업 병행) 수업을 중심으로 창극, 마당극, 음악극, 찬불가, 합창지도 등의 전문교육을 받는다. 작곡과 지휘 전공자는 전통음악의 DNA를 새로운 한국음악의 모티브로 활용하여 세계적인 K-Music을 창출하는 교육을 받는다. 아울러 방학 중에는 전공교수와 불교음악원, 봉은국악합주단 등과 함께 템플스테이를 통해 집중 교육을 받는다.

“지금 전국의 사찰에 있는 합창단 지휘자들의 80%가 기독교인들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송가 같은 곡들을 부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국대 한국음악과는 1학년 때부터 모두 지휘와 작곡을 가르치면서 종합적인 교육을 할 겁니다. 그렇게 교육받은 학생들은 누구나 사찰 합창단 지휘를 할 수 있고 찬불가를 작곡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 둘 인재들이 곳곳에 자리를 잡게 되면 앞서 말한 그런 걱정들은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 한국음악과 신설은 매우 희망적인 것으로, 불교계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박 석좌교수는 그렇게 미래를 내다보고 시작하는 이번 불사가 제대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의 공조가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학생들이 학교를 마치고 사회로 나갔을 때 마음껏 불교음악, 불교일 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승단과 재가가 인식을 공감하고 지속적으로 원력을 회향해야 한다는 것이다.

“동국대 한국음악과 신설은 새 역사,
인재양성이 한국불교음악 넓히는 길”
인간문화재 개인지도 등 혁신 교육
“찬불가는 사부대중 함께 부르는 것”

한국음악과를 졸업한 학생들은 음악교사, 교수, 초·중·고 국악강사 및 자치단체 국악교실 강사, 국공립예술단의 지휘자 및 연주자, 국악방송사 또는 음악관련 언론, 출판, 방송 등의 기자 및 PD, 사찰 및 불교 관련 합창단, 연주단의 지휘자와 연주자, 해외 불교 국가와 연계한 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교수진도 그야말로 문화재급으로 구성했다. 박 석좌교수와 동국대는 졸업 후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실기능력 배양을 위해 현직에서 활동하고 있는 저명인사를 대거 교수로 추천 위촉했다.

다함께 부르는 찬불가

박 석좌교수는 불교음악 활성화와 음악을 통한 포교를 넓히기 위해선 법회의 형식도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자들 대부분 제대로 알고, 부를 수 있는 찬불가 하나가 없어요. 그것은 법회 때 합창단만 찬불가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불자들에게 찬불가는 그저 듣는 것이지 부르는 것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 기억하는 찬불가 하나, 즐겨 부르는 찬불가 하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 음성포교라는 것은 그렇게 노래를 부름으로써 신심을 다지게 되는 것인데 실상 불자들은 아는 노래 하나가 없는 것이죠. 꼭 불자 하나 더 늘리는 것만이 포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불자들이 더 깊은 불자가 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도 포교라고 생각합니다.”

박 석좌교수는 법회 때 찬불가를 합창단뿐만 아니라 법회에 참석한 불자 모두가 함께 불러야 한다고 말한다. 그렇게 찬불가가 교회의 찬송가처럼 생활 속에서 불려야 찬불가가 대중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석좌교수는 찬불가의 생활 속 대중화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한 실천에도 옮기고 있다. 그는 상월결사의 불연맺기 네트워크 ‘수미산 원정대’ 1기다. 2021년 5월 상월결사의 정신을 이어 불교중흥의 씨앗을 마련하기 위해 창립된 수미산원정대 참여자들은 총 12강의 불교교리, 사상, 문화 등을 배운다. 교육기간 동안에는 자원봉사로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며, 성지순례로 신심도 다진다. 박 석좌교수는 불자 외에도 다양한 인사들이 참여한다는 점을 활용해 수미산원정대 참여자들에게 찬불가를 가르치고 있다.

박 석좌교수는 2021년 7월 조계종 불교음악원장에 재임명됐다. ‘생활찬불가 운동’을 통한 찬불가 활성화를 이끌어 온 박 원장은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불교음악 확산을 통한 대중화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했다.

한국불교음악학회와 봉은국악합주단 등을 산하에 두고 있는 불교음악원은 종교 활동에 있어서 장엄한 의식 음악으로써 뿐만 아니라 관대한 포용력을 발휘하는 포교 음악에 이르기까지 그 가치를 규명하고, 발전 방안을 연구하여 교육함으로써, 대승불교실현을 목표로 2015년 4월 대한불교 조계종 종령으로 설립되었다. 불교합창 아카데미, 불교 음악지도자과정, 찬불가 최고위 과정 등의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우리민족의 대중생활 속에서 향유되고 전승되어진 다양한 불교음악과, 시대의 변화에 따라 창작되어진 창작 찬불가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제를 겸비하여 교육함으로써, 불교음악의 본질적 정서를 회복하여 문화변화를 극복하고, 나아가 이를 창조적으로 계승함을 교육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흥’과 함께하는 박범훈 찬불가

박 석좌교수는 1991년 새로운 찬불가, ‘붓다’를 발표하며 한국 찬불음악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그리고 광덕 스님의 요청으로 만든 국악교성곡 ‘부모은중경’을 비롯해 ‘보현행원송’, ‘꽃을 바치나이다’, ‘무상계’ 등 찬불가와 대형합창곡들을 이어서 발표했다. 박 석좌교수는 한국불교음악이 전개된 역사적 배경과 그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불교의 발상지인 인도, 중국과 한국, 그리고 일본까지, 그는 그 과정과 성과, 정체성 등에 대해 공부해왔다. 그는 이 시대의 우리에게 필요한 찬불가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고, 실생활에서 대중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찬불가를 만드는 데 헌신해 왔다. 이제 그는 불교음악의 대중화와 생활화라는 원력으로 후학양성이라는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려 한다. 신설된 동국대 한국음악과의 미래에 한국 불교음악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며, 그 미래가 한국불교를 넓히는 불사 중의 불사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M. 시어터에서는 상월결사의 수미산 원정대가 상월결사 법인화를 기념하는 수미산 가족음악회가 열렸다. 음악회에는 가수 양수경, 김국환 등 수미산 원정대 참여자 등이 출연했다. 박 석좌교수는 작곡과 지휘자로 참여했다. 공연은 자승 스님이 지은 게송에 박범훈이 곡을 붙인 ‘수미산이 사바세계로 구나’를 국악인 김성녀와 봉은불음청년합창단 등 전 출연진이 함께한 무대로 막을 내렸다. 한국불교의 중흥을 위해 일어선 상월결사, ‘중흥’이라는 숙제를 다 할 때까지 박범훈의 찬불가가 그 길에 함께할 것이다. ‘다함께 부르는 찬불가’가 함께할 것이다.

2023 謹賀新年 계묘년

‘영존· 정심(定心)의 송’

일여의 선념은
사람들의 마음을 눈뜨게 하고
지혜의 눈을 빛나게 한다

- 교도인(敎導院) -

‘영존· 성행(成行)의 송’

가르침은 올곧다
올곧기 때문에 진실이라 한다
진실이기에 귀하다

- 신도인(眞導院)-



“기도의 힘”

기도의 힘은 나를 이끌어
번민의 구름을 없애주시네
믿는 마음에 보여주시는
깊은 자비에 감사하자
기도하라, 기도하라
깊은 자비에 南無眞如

- 원주(苑主) 희망의 노래 -

眞如苑 신뇨엔
▶ 해외정사 및 포교소 : 24개국 48개 ▶ 집회소 : 51개국 930여개
▶ 한국정사 : 서울·부산·제주·창원 ▶ e-mail : shinnyoen@hanmail.net
▶ 서울정사 :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97길 46 TEL (02)719-6998
▶ 부산정사 : 부산광역시 연제구 반송로 47 TEL (051)892-6998